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6호 【루계 제25645호】 주체106(2017)년 5월 16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바사르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

《백두산과 오늘의 조선》 진행

《백두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의 기간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자까르따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의 특별웨브싸이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편집물들이 올랐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슈, 먄마,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인도네시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개막연설과 축하발언들에 이어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서기국 성원인 메구 싼또싸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조선은 백두산과 더불어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은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투쟁자욱이 새겨져있는 조선혁명의 성산이라고 하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을 거점으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신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의 총포성을 들으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선군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불세출의 선군태양으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를 받고계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백두의 기상과 넋을 한몸에 지니신 김정은각하는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시다, 조선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은 그이의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한강한 공격정신이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다고 주장하였다.

2면으로 계속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85돐과 김정일령도자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뜻깊은 계기를 맞으며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와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 《백두산과 오늘의 조선》에 참가하고 각하께 이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의 철학적의미를 새겨보면서 저희들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워주신 김일성주석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회고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면서 조선식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신 김정일령도자각하의 선군령도업적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속에서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하고있는 신화적인 기적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것을 확언하면서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정의를 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인터네트토론회
《백두산과 오늘의 조선》 참가자일동

2017년 4월 25일 자까르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을 도이췰란드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베를린 아차위메디아프린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7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해방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도덕적의무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며 조선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떨치며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가성소다생산공정건설과 생산에서 혁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공정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면서 화학제품생산에서도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와 화학공업성의 지도방조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공정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매탄화학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해온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가성소다생산공정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짜고들고있다. 붉은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속에 전투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솔선 풀어나가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여러 생산공정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성소다공정을 일떠세워야 하는 공사는 옹근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는것과 같은 방대한 공사이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한데 이어 설비조립전투에 들어가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화학제품생산에서도 련일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카바이드전기로들에 대한 보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선행공정에서부터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생산의 첫 공정으로부터 마지막공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료해하고 공정간 련계를 밀접히 해주면서 비날론과 염화비닐, 가성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날론의 질을 높이며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원료직장과 카바이드1,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회로와 카바이드전기로운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초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합성직장과 종합직장, 증기1,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 비날론생산에 필요한 중간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생산의 마감공정을 지켜선 수정방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비날론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조액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종전보다 비날론의 질을 더욱 높이고있다.

보수본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각 직장의 수리작업반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련합기업소의 전반적인 생산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밑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황해남도에서 모내기 시작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의 벼모내기가 시작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포전들에 나가 벼모내기를 다그쳐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쌀로써 굳건히 지켜갈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모내기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정치사업의 무대를 드넓은 포전으로 옮기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모내기가 힘있게 밀어지고있는 농장들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한해농사에서 모내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모내기전투작전과 지휘를 빼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얼마전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에서 벼모내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 이어 일군들은 시, 군들에 나가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청단군, 벽성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들끓는 전투장으로 나간 일군들은 써레치기를 앞세워야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다고 하면서 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직들의 아성을 짓뭉개버리는 심정으로 매일 써레치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써레치기가 앞서는것만큼 모내기성과가 오르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포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재령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립장에서 벼모내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안악군, 신천군의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를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줄대같이 실한 모를 키워내고있다.

도안의 여러 군들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짠지게 하고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모내기성과는 날이 갈수록 부쩍 뛰여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보통강반에 종합적인 체육촌 훌륭히 건설

평양시에서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종합적인 체육촌이 훌륭히 일떠섰다.

수양버들 흐느적이는 보통강의 경치와 한껏 어울려 마치도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수만㎡의 면적에 4 300㎡의 종합체육관과 200여명 수용능력의 체육인숙소, 인공잔디축구장과 야외롱구장, 배구장, 정구장 등이 그윽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체육촌은 볼수록 장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평양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1년 남짓한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체육촌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까운 시일안에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각 도들에 종합적인 체육촌을 하나씩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종합적인 체육촌을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높은 목표밑에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협의회를 열고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는것과 함께 시안의 모든 력량을 건설에 총집중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평천구역과 중구역, 보통강구역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건설에 떨쳐나섰다.

체육촌건설장에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치렬한 백열전이 벌어졌다.

큰 규모의 종합체육관건설을 맡은 평천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작부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건설장에 달려나온 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솟구쳐나오는 지하수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방대한 기초공사를 48시간만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빼기있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토론하면 끝에 높지대에 알맞는 새로운 시공방법을 찾아내여 막대한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기초공사를 짧은 기일에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그 기세로 건축공사를 훨씬 앞당겨 끝내고 마감전투에서도 련일 혁신을 창조하여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의 본때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체육인숙소건설을 맡은 중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자력자강의 힘으로 맡은 대상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모든것이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높아가는 건설속도에 맞게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고 고급기능공들로 전투대오를 보충해주어 건설을 제기일에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오수뽐프장건설을 맡은 보통강구역에서도 새로운 시대속도가 창조되였다. 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양수기를 설치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면서 기초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어 짧은 기일에 맡은 대상건설을 손색없이 해제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중등학원과 초등학원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넣으면서도 체육촌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시청년동맹과 시직맹, 시녀맹조직들에서는 야외축구장건설장에 필요한 흔석을 원만히 보장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건축설계를 맡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대상설계를 제기일에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한마음안고 시인민위원회안의 여러 단위들과 시송배전부, 중앙정보통신국과 평양326전선공장, 담배련합기업소와 시인민보안국, 두단오리공장, 평양식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수많은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종합적인 체육촌건설완공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참으로 종합체육관과 체육인숙소를 비롯한 기본건축물은 물론 특색있게 건설된 다리와 수상화초공원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체육촌의 한그루의 나무와 한포기의 잔디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떨쳐나 성실하고 깨끗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충정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보통강반에 훌륭히 일떠선 종합적인 체육촌은 수도시민들의 체육문화생활에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3)

위대한 사상—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였다고,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우리 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명맥을 지켜주고 승리적전진을 추동하여온 위대한 주체사상은 결코 고요한 서재에서나 평온한 나날에 창시된것이 아닙니다.》

김경희강사는 강의서두를 이렇게 떼며 우리를 3호실에 있는 김림감옥모형앞으로 안내하였다.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량옆에 감방들을 설치한 십자형건물, 철조망까지 늘인 키높은 담장…

모형은 당시 김림감옥의 살벌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1920년대말 김림을 휩쓴 청년학생운동과 중동철도사건, 남만청총대회사건은 일제와 반동군벌로 하여금 김림의 공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청년학생들이라고 단정하게 하였다.

이런 때 김림제5중학교 학생들의 독서회사건이 실머리가 되여 많은 청년학생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체포한 김림제5중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끝에 그들로부터 육문중학교의 공청조직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였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부추김을 받은 반동경찰에 체포되여 주체18(1929)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김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감방은 북쪽에 위치하고있어 1년치고 어느 하루도 해가 드는 날이 없었기때문에 다른 방들보다 더 추웠다고 강사는 이야기하였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힌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대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벽면에 전시되여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김일성은…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도 없이 김림감옥에 갇히우게 되였다. 어둡고 추운 방에서 김일성은… 쓸쓸하여지면 아버님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또한 동맹의 맹세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였다. …》

언제인가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림감옥모형을 보시면서 그때 이 감옥에는 묻혀세라는것이 있었다고, 간수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찔러주면 그만큼 잘 보아주었다고, 그런데 자신께는 돈도 물건도 없었기때문에 간수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수 있다. …

바로 이것이 그때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속에 간직된 불굴의 신념이였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될지언정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비록 옥중에 계시였지만 혁명투쟁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더욱 과감히 밀려나가실수 있은것이다.

외부와의 련계를 위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려고 결심하시고 감옥의 간수들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사실, 감옥에서도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신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필승의 신념이 얼마나 굳셀것이였는가를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감옥을 또 하나의 혁명무대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기간에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경험을 분석총화하시였다.

반일의 의기높이 8도강산을 주름잡았지만 실패를 면치 못했던 의병들,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들만을 쳐다보면서 조선독립을 《선사》해줄것을 기대한 사대주의자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여 투쟁에 동원시킬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에 골두한 종파분자들…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패를 깊이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심각히 느끼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권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ㅌ.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중생활을 하시는 기간 사색을 거듭하신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갈것인가 하는것이였다.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력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겠는가, 혁명의 령도조직으로서의 당은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였다.

그때 손정도목사를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은 그이를 출옥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결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포되신지 7개월이 지나서 감옥을 나오시였다고 하면서 강사는 우리를 한상의 사진문헌앞으로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조직성원 고재룡과 함께 찍으신 사진문헌이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며 감회깊은 추억에 잠기시였다가 자신께서는 낮에는 저 다무산자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활동하였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다녔다고, 그럴 때면 일본군경들도 자신이 중국사람인지 조선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깊은 회억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1920년대말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위기의 출로를 만주침략에서 찾고 준비를 다그치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폭압과 략탈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일제는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사는 자료들이 전시된 벽면앞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조선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14 600여명, 해마다 증가되는 현상》, 《정든 고향 리별하고 남부녀대로 만주행》, 《로동은 15시간 임금은 25전… 눈물겨운 강서농민참상》…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신문들과 류빌로동자가 만들어 신었던 신발, 신의주왕자제지공장에서 로동자들을 채용할 때 쓰던 360㎏의 쇠덩어리를 비롯하여 전시된 자료와 유물들은 그 시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 대한 정치적폭압과 함께 경제적략탈과 착취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었다.

일제의 전대미문의 식민지통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더는 참을수 없는 절식상태에 몰아넣었으며 마침내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탄압과 략탈에 폭력적진출로 항거해나섰다.

그에 대하여 우리는 전시된 여러 적문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었다.

세월의 흐름속에 종이는 누렇게 퇴색되였지만 하나하나의 글자들은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항거정신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우리 인민들의 투쟁이 폭동적형태로 고조되고있던 이 시기 파경적인 5.30폭동이 일어났다.

그때 동북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따라 당재건운동을 포기하고 중국당에 전당하기 위한 공작을 벌리고있었는데 그들은 이 기회에 공로를 세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야욕밑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몰았던것이다. 결과 5.30폭동은 실패하고말았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혁명이 나갈 길, 다시말하여 혁명의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대중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출옥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중생활과정에 쇠약해진 몸을 돌보실 사이도 없이 주체19(1930)년 6월초 사도탕구에서 회의를 여시고 이미 무르익어오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투쟁방침들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30폭동의 후과가 큰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가 크다고 한탄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투쟁정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었다. 이런 인민에게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그런 로선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섬겨바치는것도 아니다, 우리스스로가 주인이 되여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도탕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후 6월 하순에 카륜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그들과 헤여지시였다.

강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앞에 이르렀다.

수수한 학생복을 입으시고 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승엄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넘친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회의장에 힘있게 울려퍼지던 그날의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혁명에서 이러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만 옳은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으며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달성할수 있다. …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그날의 력사적보고는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는것만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전결한 자주정신의 응결체가 아니던가.

조선혁명의 성격과 일제와의 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혁명적당창건로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고전에도 없고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내놓은적이 없는 새로운 정식화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랑열에 《주체사상 창시》, 《선군사상 창시》라고 쓴 글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밝혀주신 주체의 진로를 따라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장구한 행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것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있었기에 사대와 교조가 뿌리깊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이 일떠서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도, 제국주의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정치군사강국, 핵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가 우뚝 솟아오를수 있은것이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다!

정녕 이 위대한 사상과 진리로 승리하시고 무궁한 우리 혁명의 미래를 마련하신것은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강사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의 첫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청취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가나 버들숲에서 조단위로 혹은 대표전원이 모여서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론의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였다고 설명해주었다.

이어 우리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앞에 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회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주체19(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였다.

첫 당조직에는 차광수, 김혁, 최창걸 등 핵심적인 성원들이 망라되였다.

첫 당조직에 가입한 성원들의 흥분이 얼마나 컸던지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김혁동지는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먼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으로 즉흥시를 읊었고 최효일동지는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례총을 쏘고싶다고 흥분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상하시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였다고,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력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명칭을 건설동지사라고 명명하시였다.

그 명칭에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하여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포부와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첫 당조직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기층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온성지구에서 발굴된 《기당국내회합 조선혁명만세》라는 구호문헌에 대한 사진자료와 기층당조직분포도가 그 력사적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3호실을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시라는 격정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다음호실에서는 또 얼마나 격동적인 력사적사실을 알게 되겠는가 하는 흥분된 심정으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에게 노래 《혁명가》의 구절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우리는 누리에 불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글 본사기자 정순학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70돐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70돐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가 15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판게무분, 평양시내 보건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개회사를 김형훈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36(1947)년 5월 21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을 방지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사업과 위생문화사업, 보건일군양성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민적보건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명확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대강이며 주체적보건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을 문명강국건설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보건사업전반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완성하며 보건기관관리운영을 정보화하는데서 이룩된 경험들과 연구성과들을 반영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아염소산나트리움의 소독학적특성과 위생검역 및 병원환경소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B형간염면역복합물치료약품의 안전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관통무대동맥확장증의 외과적치료》 등의 론문들은 치료예방사업에서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인민보건사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효능높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진단치료방법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높은 의학과학기술적성과로 담보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수령님 잊지 못해하신 교하의 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투쟁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찾아낸 혁명의 진리입니다.》

주체19(1930)년 여름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서 준엄한 시련의 나날이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여러차례나 일으킨 좌경모험주의적인 폭동으로 하여 혁명앞에 엄혹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림감옥에서 출옥하신 후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그때 사선의 고비에서 수령님을 서슴없이 도와나선 평범한 한 녀인이 있었다. 우리 수령님 늘 잊지 못하시며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신 녀인은 누구인가.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고 이름대신 교하의 아주머니로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알려진 녀인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시에 경찰들의 추적을 받던 위기일발의 순간 주저없이 그이께 자기의 아이를 업혀주면서 남편으로 위장시켰다. 그리고 집에 닥쳐든 놈들을 뭄기응변으로 따돌리고 수령님을 보호해드렸다.

우리 수령님께서 누구이시라는것을 알고 한 일이 아니였다. 그저 혁명가라는 하나의 생각으로 사심없이 도와나섰던것이다. 일시적으로 혁명의 길에 나섰던 사람들은 역경에 겁을 먹고 의리와 량심까지 저버리면서 몸을 사리던 그때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원해나선 그 소박한 촌녀성의 모습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으시여 회고록의 갈피에 새겨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자신께서는 혁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위험한 순간도 적지 않게 겪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 당해보았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목양에 그슬리고 피로 얼룩졌던 1930년 여름을 회상할 때마다 교하를 생각하고 잊을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를 그려보군 한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그때 그 녀인의 모습에서 단순히 정과 의리를 간직한 결곡한 인민,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한시바삐 찾아줄것을 바라는 그들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만을 읽으신것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나선 혁명가들에 대한 인민의 헌신적인 보습에서 장차 혁명의 주체를 이룰수 있는 위대한 동력을 보시였다. 김림감옥에서 구상하시였던 모든것이 옳았으며 카륜회의에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의 진로가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시고 이런 훌륭한 인민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한다면 반드시 조국을 해방하고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백배로 굳히시였으리라.

교하의 아주머니만이 아니였다. 초기혁명활동시기 깊은 인연을 맺으신 손정도목사를 비롯한 진정넘친 인민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확증하시고 나갈 방략을 세워가군 하시였다. 아늑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간고한 혁명의 폭풍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신 그런 위인은 세상에 없다.

바로 여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인적풍모가 있는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주체사상은 한없이 위대하고 고마운 인민에게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가장 고귀하고도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표이고 필승의 보검이다.

본사기자 최유일

1면에서 계속

백두산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더욱 빛나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조종의 산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시였던 사상리론적예지, 인민적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발현이며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백두령장의 특출한 정치실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하나의 강토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는 진보적인민들도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 한 세계자주화위업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보고자는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 성원들이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천출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찬양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을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와 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에서 보내여온 축하편지가 소개되였다.

이어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공동서기인 자베드 안싸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마치지부 서기장,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 공동서기인 피터 윌슨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서기,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엠디. 하룬 아르라쉬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네팔전국준비위원회 서기장인 만주 바르다나 사끼야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몽골조선친선협회 지도리사회 성원 드. 미츠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등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비법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시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고 김일성주석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뜨거운 인간애와 거대한 포용력으로 만민을 한품에 안아주신 김일성주석의 고매한 풍모는 세상사람들을 감복시켰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자주위업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을 빛내이실 의지를 안으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절세위인의 헌신적생애를 찬양하고 인민대중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일각하는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토로하였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인민은 승리만을 떨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도록 하신데 대하여, 날로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실로 지난 5년간은 전세계가 정의의 채찍치로 폭제의 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시는 천출위인의 떠여난 지략과 배짱에 대한 찬사로 끓어번진 나날이였다, 김정은각하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 김정일각하와 꼭같으신분이시며 정치의 거장, 매혹적이고 창조적이며 다재다박하신 천재이시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또한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백두산대국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은 무궁번영할것이라고 하면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칭송하는 8월의 대축전장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내기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자

올해 농업전선에서 승전고 높이 울릴 불같은 열의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5월의 사회주의전야에 총동원, 총집중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모내기전투에서의 승리이자 알곡증산성과이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에서의 또 한차례의 승리로 되기에 온 나라의 기대와 환심이 사회주의협동벌로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놓고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가 조직되였다.

해마다, 매 영농공정때마다 진행되군 한 기술전습회였지만 올해의 모내기기술전습회에 참가하여 우리가 받은 감흥은 컸다.

최북단의 함경북도와 자강도, 세포지구를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참가자들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불같은 열의가 무엇보다 우리를 흥분시켰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적대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뜨락또르가 벗어서면 부림소로 논밭을 갈고 자체의 힘으로 모내는기계들을 한대한대 개조하여 만단의 전투동원대세를 갖추어놓은 기쁨을 안고 모여온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

우리와 만난 일군들마다 사회주의강국건설도, 인민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어떻게 하나 올해 모내기전투의 승리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극악한 포위환에 파렬구를 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쌀로써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기술전습회에서 한가지라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진지하게 과교들며 노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열정적이였다.

이번 기술전습회는 농산부문만이 아니라 관개, 농기계 등 련관부문 일군들이 다 참가한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였다.

형식이 다양한것이 이번 기술전습회의 류다른 점이였다. 모내기뿐만아니라 그 이후 비배관리, 토양관리, 양수장운영과 관련한 기술전습과 군돼지종축장, 군식물방역소, 룡산협동농장 제6작업반의 자력갱생기지들에 대한 보여주기도 포함되여 있었다.

내용에서도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을 많이 주면서 참가자들이 기술전습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해설해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습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농업성 부상 리재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승전고를 높이 울려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주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올해의 모내기전투야말로 당의 숭고한 뜻을 관철하여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리기 위한 돌파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은 아무리 혁신적인 영농방법과 기술도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난 시기 농사의 교훈과 그 원인을 분석해주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원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는 방향에서 기술전습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데 모내기전투를 비롯한 모든 영농사업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국장 주철규, 부국장 리경록동무를 비롯한 여러 일군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구체적인 사실들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하고 여기에 당적, 국가적힘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선군의 혁명성과 우주에 떨친 주체조선의 위력에 집접한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절정에 달한 최근에도 영농전투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위해준것도 우리 당이다.

내각과 농업성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올해농사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더우기 세차게 휘몰아치는 과학농사열풍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큰모도입면적이 근 70%로 늘어난 조건에서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을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로 보고 모내기전투작전을 짜고들었다. 그 첫 사업이 바로 기술전습회였다.

기술전습회에서는 3가지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첫째로는 일군들이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드는 문제였다.

벼모판씨뿌린 시기와 벼모생육상태, 모종류별특성에 따라 모내기적기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모내기선행공정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문제가 먼저 제기되였다. 여기서는 연유가 부족한 조건에서 마른논씨뿌리기를 적극 받아들이고 모내기적기를 보장할수 있게 물잠이와 써레치기를 제때에 선행시킬데 대한 내용이 강조되였다.

벼모생육상태에 맞게 모내기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그대로 집행할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였다. 여기서 올해 전국적으로 모판씨뿌림량이 평당 200g이하, 모판면적이 적은 큰모재배방법이 약 70%정도 도입되는 조건에서 각 도, 시, 군의 농업지도일군들이 경험주의에 매달려 일률적으로 지도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게 할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다.

둘째로는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며 모내기를 질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였다.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모폭는 깊이보장문제, 모를 잘 뜨며 뜬 모는 묵이지 말고 반드시 그날로 꽂을데 대한 문제, 모판흙이 불은채로 모내기를 하여 모살이기간을 줄이는 문제 등 모내기질보장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높은 다수확성과를 이룩한 여러 협동농장들의 경험을 심케들어 해설하는 성일군들의 강의는 참가자들의 자각과 열의를 더욱 계발시켜주었다.

다음으로 모현결태책을 세워 모내기일정계획을 철저히 보장하며 마지막모가 나갈 때까지 벼모관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도 이야기되였다.

셋째로는 모내기후 논벼비배관리를 잘하는 문제였다.

생육단계별로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데서 생육중기에 기계를 리용한 깊은층비료주기를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것, 화학비료와 함께 여러가지 미량원소영양을 보충해주는 사업을 잘할데 대한것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정연한 물공급체계를 세우며 전기와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양수공들과 논물관리공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최대로 높여주는것, 논김잡이와 병해충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 등 비배관리를 잘하여 알찬 이삭이 맺히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강조되였다.

모내기현장에서의 기술전습회에서는 능률높은 모내는기계들의 작업모습과 수십대의 깊은층비료주는기계들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참가자들은 큰모와 영양단지모 등 여러 형태의 모내는기계들의 동작상태와 깊은층비료주는기계를 살펴보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농기계들을 만들어 우리 식의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에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뜻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두둑재배, 이랑재배방법의 원리와 여러가지 병해충구제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이밖에도 기술전습회에서는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곡식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문제, 고지대감자농사에 힘을 넣어 정보당 50t이상 생산할데 대한 문제들도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룡산협동농장 제6작업반의 축산기지와 알뜰하고 깐진 일솜씨가 엿보이는 여러 공구창고들, 작업반원들의 생일식사공급일람표까지 게시되여있는 식당, 흙보산비료생산기지 등 여러 자력갱생기지들에 대한 참관도 참가자들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끝으로 고인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은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 모내기와 밭작물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결속하고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잘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술전습회를 통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철저히 집행해나가는 과정이 곧 과학농사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여기에 다수확의 열쇠, 당정책관철전에서의 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이번 모내기기술전습회가 뜻깊은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여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장은영

염주군 남압리당위원회 일군들

앞당겨 진행한 출동모임

염주군에는 군적으로 제일먼저 모내기를 시작하여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는 단위가 있다. 남압리이다.

이것은 이곳 리당일군들이 모내기전투에 앞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든 결과이다.

리안의 선동력량과 수단들의 출동모임과 뜨락또르출동식을 앞당긴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 4월 리에서는 지난 시기 모내기전투를 며칠 앞두고 진행하던 선동력량과 수단들의 출동모임을 훨씬 앞당겨 조직하였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였는가.

사실 리에서는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많은 면적의 논에 대한 마른씨뿌리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물논씨뿌리기에 비해 능률을 훨씬 높이면서도 연유를 절약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지난 시기 리에서 물논씨뿌리기를 하느라 포전에 물을 채우는데만도 며칠 걸려야 하였다. 물논씨뿌리기를 하면 뜨락또르에 무하가 많이 걸리고 적지 않은 품이 들었다. 그러나 마른논씨뿌리기를 받아들이면 포전에 물이 채워질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였고 포전별 씨뿌리는 시간을 줄이면서 질도 높일수 있었다.

그래서 리에서는 모내기전투전으로 마른논씨뿌리기를 끝내려고 하였는데 논갈이가 선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최영진, 리학천동무를 비롯한 관리일군들이 안타깝게 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리당위원장 장성남동무는 농장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지난해와는 달리 선동력량과 수단들의 출동모임을 앞당기기로 하였다.

빈틈없는 준비밑에 선동력량과 수단들의 출동모임이 진행되였다.

리당일군들은 출동모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작업반초급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과의 사업도 잘하였다. 참가자들은 출동모임이 끝나는 그길로 포전들에 달려나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담당한 소판리공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렇게 되여 모내는 시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탕개를 늦추고있던 소판리공들은 물론 많은 농장원들이 논갈이전투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온 농장벌에 벌써 모내기전투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서게 되였다.

리당일군들은 이에 맞게 논갈이에 동원된 농장원들의 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였다.

그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리적으로 논갈이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리당위원회는 뜨락또르출동식도 앞당겨 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계화작업반원들은 더욱 분발하게 되였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마른논씨뿌리기실적을 매일 두배이상으로 기록하게 되였다.

이것은 논두렁짓기, 물잠이를 비롯한 모내기준비작업을 맡은 농장원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결국 리에서는 모내기전에 계획하였던 모든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해제끼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본사기자 장철범

주타격전방의 승리를 담보하는 증송의 기적소리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불타는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산악같이 떨쳐나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지난 1.4분기간 영농공정에 드팀이 없게 석회석을 비롯한 물동을 제때에 원만히 수송한데 이어 4월 영농물자수송계획을 211%로 빛나게 결속한 이들은 5월에도 증송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일정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김력의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 필요한 물자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풍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일군들은 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업성과의 현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협동벌에 보낼 영농물자들을 원만히 수송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성에서는 시기를 다투는 영농물자를 제때에 농촌에 보내주기 위하여 하루 2차이상 수송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화상회의를 통하여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영농물자수송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역, 대들을 맡고내려간 성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장악하고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한편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대중을 증송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의 곡창지대들에 대한 영농물자수송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수송성과를 확대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영농물자의 수송성과여부를 화차수리와 짐을 싣고부리는 시간을 줄이는데서 찾은 국의 일군들은 화차수리와 상하차설비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보장에 큰 힘을 넣고있다.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영농물자수송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여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기관차의 실동률이자 곧 영농물자수송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한 서평양기관차대, 평양기관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튼튼한 수리기지에 의거하여 기관차수리속도와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승무원들은 기관차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철길의 기술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많은 영농물자를 사회주의협동벌로 실어나르고있다.

평양조차장객화차대를 비롯한 국아래 객화차대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탐구동원으로 맡겨진 화차수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영농물자수송에 필요한 화차를 원만히 보장해나가고있다.

서해수역과 서사리원역을 비롯한 여러 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영농물자수송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영농물자확보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게 화차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상하차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로동자들은 접근렬차들의 편성상태와 기술상태, 도착시간을 환히 꿰들고 렬차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차풀이와 차무이를 진행하여 렬차의 역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이고있다.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나르는 심정으로 영농물자수송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이곳 당, 행정일군들은 중요화물역들에서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임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기동적인 화차이동수리전투와 운행증검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여 영농물자들이 제때에 해당 지역들에 도착하게 하고있다.

국의 사령원들은 짐실기역들과의 련계밑에 집중수송렬차를 구간별, 방향별로 편성하고 수송지휘를 짜고들어 영농물자생산단위들과 사회주의협동벌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도록 하고있다.

개천기관차대, 정주기관차대, 안주객화차대, 자성청년역을 비롯한 국아래 여러 기관차대와 객화차대, 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리정비를 깐지게 하고 역들사이의 련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매일 맡겨진 영농물자수송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함흥철도국과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영농물자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두줄기 궤도우에 높이 울리는 영농물자증송의 기적소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의 승리를 안아오며 사회주의협동벌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평성, 강계가방공장 준공식 진행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대정론을 펼쳐가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평성, 강계가방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현대적인 가방공장들이 건설됨으로써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학생용가방을 비롯한 질좋고 멋있는 가방들을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이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 김재룡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공장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들에서는 준공사가 있었다.

연설자들은 가방공장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것을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내세우시고 각 도들에 가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뜻을 받들고 가방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울 구체적인 계획밑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건설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건물내외부를 형성안의 요구에 맞게 손색없이 완성하였으며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각종 재봉기와 재단기, 날염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준공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연설자들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겨안고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이 가방사태, 가방풍년을 안아옴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아이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의 가방들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가방상표를 특색있게 만들며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와 년령신체적특성에 맞게 가방의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안창작과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질제고에 큰 힘을 넣어 공장제품을 아이들과 인민들이 좋아하는 인기상품으로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모든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들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원산버섯공장에서— 본사기자 리평남 찍음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용기질에 의한 버섯재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당의 구상이다.

버섯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냉이속을 적극 리용하는것과 함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대용기질을 찾아 리용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나선다. 이렇게 놓고볼 때 최근 강냉이짚에 의한 버섯재배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버섯재배는 주로 강냉이속으로 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강냉이속은 그 원천이 제한되여있기때문에 버섯재배를 련속적으로 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버섯재배를 잘하고있는 해주시 옥계동 38인민반에서 사는 송순희동무의 말에 의하면 강냉이짚으로도 얼마든지 생산원가를 낮추면서 그 생산성을 1.3~1.6배까지 높일수 있다고 한다.

강냉이짚을 버섯기질로 리용하는 경우 분쇄한 강냉이짚 100kg에 뇨소비료 0.3%, 과석 또는 고회석 0.5%, 일정한 량의 희토류광물질을 첨가하여 느타리버섯을 130~150kg이상 생산할수 있다.

이렇게 하니 종전과는 달리 강냉이속, 쌀겨, 콩깨묵을 쓰지 않으면서도 대용기질로 지난 시기보다 2배나 되는 버섯을 생산할수 있었다.

이 방법은 종균과 원료만 있으면 쌀겨를 비롯한 알곡원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버섯을 생산할수 있기때문에 어느 단위에서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

또한 버섯생산에 리용하고 나온 폐기질은 집짐승먹이로 리용할수 있어 좋다고 한다.

버섯폐기질속에는 적지 않은 량의 영양분이 축적되여있다. 이것을 집짐승들이 소화흡수할수 있도록 하여준다면 얼마든지 알곡먹이대신 리용할수 있다.

여기서 기본은 강냉이짚속에 있는 섬유질을 분해하여 당질과 영양분을 만들어주는것이다.

버섯폐기질에 희토류광물질을 첨가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다음 먹이로 리용한다. 이렇게 만든 먹이를 돼지, 닭, 오리에게 먹이면 종전보다 알곡먹이소비기준을 훨씬 낮추면서도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할수 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비약에서 더 큰 비약에로

922건설돌격대 수도려객운수국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원동력은 대중의 정신력입니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불길높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가운데 새 소식이 전해졌다.

농업과학기술선전실건설에서 제일 앞선 수도려객운수국대대가 본보기단위, 보여주기대상으로 선정.

세포지구에 새로 꾸려진 수십개의 축산작업반들에 일떠세우는 이 대상건설에는 많은 단위가 동원되였다. 그중에서 앞서나가는 이 단위의 일본새에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그 건설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이곳 일군들이 깊이 생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 대상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런것으로 하여 대원들이 이 과업을 긴장하게 대하지 않을수 있었다.

지난 기간 집짐승우리를 비롯하여 덩지큰 건물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 이들이기때문이였다.

그 성과에 대한 자만도취가 침체와 답보를 낳을수 있다는 생각이 일군들의 뇌리를 쳤다.

장석훈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이것을 대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아박아주면서 다른 단위들보다 먼저 새 대상건설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제는 건설경험이 풍부하고 기능공들도 있는것만큼 건설속도를 높이는데서 자재보장을 빨리 따라세우는것이 관건적문제로 나섰다.

이 단위에 화물자동차는 한대뿐이였다. 때문에 그 리용효과를 높이자면 자재적재량을 최대로 늘여야 한다는것이 모두의 일치한 의견이였다.

그 실천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모래를 운반할 때였다. 멀리 있는 강변에 나가 모래를 실어오자면 폭이 넓은 강을 건너야 하였다.

그때 짐을 적당히 실으면 강을 힘하게 건널수 있었다. 그러나 일군들과 대원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래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강을 건느다 멈춰서면 물에 뛰여들어 어깨를 들이밀고 힘차게 떠밀어나갔다.

모래운반뿐이 아니였다.

하루에 왕복 수백리를 오가면서 실어와야 하는 수천장의 블로크운반도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단 이틀동안에 끝내였다.

탄악같이 귀중한 자재가 련속 들어오자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일군들과 대원들은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는 원칙에서 기초파기 및 콩크리트치기를 각각 하루동안에 끝냈다.

벽체쌓기를 단숨에 끝내기 위해 이들이 찾은 방법도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것이였다. 벽체쌓기를 할 때 출입문과 창문틀 부분축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때문에 이들은 기초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철근콩크리트조립물을 만들어놓았다가 해당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4~5일 걸려야 할 벽체쌓기도 하루에 해제끼였다. 그리고 건설시작후 얼출만에 총막치기까지 완성하였다.

대대에서는 이 나날에 다음 대상건설에 쓸 블로크까지 찍어놓음으로써 더 큰 비약과 승리의 담보를 전투전에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지보도반

푸르른 조국의 대지를 위해 바쳐온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

국보적인 도서 《풀판병해충사진첩》을 훌륭히 완성한 김상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끝간데없이 펼쳐진 세포지구의 풀판에는 《젊어지라 복받은 대지여》라는 글발이 뚜렷하게 새겨져있다. 축산기지건설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풀판과 글발을 바라볼수록 한 과학자가 수년세월 묵묵히 탐구의 먼길을 걸으며 완성한 국보적인 도서 《풀판병해충사진첩》이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하게만 여겨진다.

드넓은 세포전역에서 당과 조국을 받드는 백옥같은 마음을 물씨보다 먼저 땅에 묻은 사람들, 동관의 푸르름을 위해서 피와 땀을 바친 사람들은 이 도서의 가치를 잘 안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이 도서가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잘 알기에 이것을 완성한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연구사 김상철동무의 애국적소행에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김상철동무는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지만 세포지구의 풀판조성에서 관건적문제로 제기되는 풀판병해충의 구제대책이라는 어려운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절통히 내달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참다운 애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이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주었다.

푸름을 안아오는 척후병이 되리

세포지구를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몇해전 어느날 김상철동무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탄원하여 세포군으로 달려나갔다.

비포, 눈포, 바람포로 유명한 동판을 고기폭포, 우유폭포가 쏟아지는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호소는 중학시절과 더불어 세포땅과 류다른 인연을 맺은 그의 가슴을 세찬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다.

남다른 희망과 포부를 안고 그가 처음으로 맡은 과제는 세포지구에서 일명 《종과물》로 불리우는 역새풀과 습지김불을 제거하는것이였다. 그런 뿌리번식김들은 땅속에 있는 그 뿌리에까지 침투이행하여 죽일수 있는 살초제들을 섞어써야 완전히 없앨수 있었다.

살초제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살초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는 무차활성제를 개발리용할 방안을 내놓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과 힘을 합쳐 역새풀과 습지김불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보다 어려운 과제가 그들앞에 나섰다.

씨뿌리기를 위한 종자소독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던것이다.

반드시 종자소독을 진행하여야 하였지만 누구도 해본 경험이 없어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때 김상철동무가 그 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물씨소독을 잘못하는 경우 애써 개간한 수만정보의 땅을 묵이게 되고 대규모축산기지의 한해 풀농사를 망칠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물러설수도 없었다.

쉽게 내릴수 없는 결심이였지만 그는 주저없이 그 길에 들어섰다. 그 어떤 과학기술적담보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자각에서였다. 하지만 소독사업을 진행하는 전기간 심리적압박감은 나날이 커졌다. 과학자의 량심과 신념을 검증받는 그런 계기가 그의 인생길에 여러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장이 졸아들기는 처음이였다.

원래 종자소독을 국부적인 범위내에서 사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싹트기시험단계를 거쳐 확증한 다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소독사업을 하는것이 원칙이였으나 씨뿌리기직전에 물씨가 대량적으로 들어왔으니 어쩔수 없이 소독과 싹트기시험을 병행하여 내미는수밖에 없었다.

묵묵히 물씨소독을 혼자 하며 싹트기상태를 관찰하고있을 때 누군가가 슬며시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당세포위원장 김석현동무였다.

《물씨를 소독해본 경험도 없이 하자니 매근하지?》

《누구든 해야 하겠기에 맡아나섰는데 솔직히 두려운 생각이 하루에도 열때번 납니다. 실패하는 경우 그 후과에 대한 생각, 그보다도 종당에는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걱정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삽을 박고 첫걸음 일 때가 제일 힘들지. 그만큼 매일을 위해 첫걸음 여는 개척자의 긍지와 보람이 있는것이 아닐가?

젊어지는 조국의 대지를 위해 기꺼이 밑거름되여 푸른빛을 더해주겠다는 동무의 그 마음이 흔들려서야 안되지.》

눈물이 나게 고마왔다. 일흔고개를 바라보는 당세포위원장의 그 말이.

힘이 솟았다. 개척자의 본분을 깨우쳐주는 그 말속에 신비한 힘이 있는것 같았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세포등판을 개간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세포등판개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교시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결사관철해야 할 지상의 명령을 놓고 이만한 난관앞에 순간이나마 주춤거린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다. 여기는 대자연개조전투장이기 전에 수령결사옹위의 격전장이고 나는 개척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척후병이며 당의 과학전사이다. 조국의 대지를 푸르게 하는 길에서 내 그 무엇을 서슴으랴. 동관의 푸름을 안아오는 척후병으로 내 살리라!)

아직은 자연의 횡포가 광란을 부리는 이 동관에 푸름을 안아오는 척후병이 될 각오가 그의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물씨 한알한알이 송탄처럼 느껴졌다. 결코 불발탄이 되어서는 아니될 탄알,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원쑤들의 가슴팍을 맞구멍낼 탄알, 고기폭포, 우유폭포가 쏟아질 래일의 행복을 안아올 탄알, 적들의 코앞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과시할 탄알처럼 생각되였다.

비장한 각오를 안고 미더운 탄약공급수의 심정으로, 돌격로를 개척하는 척후병의 심정으로 그는 물씨소독사업에 온넋을 쏟아부었다.

후날 뾰조록이 싹을 내민 세포등판의 대지는 그의 후더운 눈물을 제일먼저 맞아들였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이 땅을 사랑한 애국자의 심장에서 분출된 격정이였고 풀판조성의 나날 더 억세여진 개척정신이 낳은 첫 승리였다.

자기만을 위한다면 먼길을 못 간다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여 풀판을 조성했건만 예상치 않았던 난관이 또다시 앞을 가로막았다. 원인모를 병과 땅속해충인 굼벵이를 비롯한 수많은 해충들이 성하여 애써 가꾼 풀판을 못쓰게 만드는것이였다.

세계적으로 몇백년의 풀판조성력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도 땅속해충구제때문에 오래동안 고충을 겪었다는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성하는 대규모풀판에서 땅속해충들이 갑자기 늘어나는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영을 기대할수 없을뿐아니라 이 하늘아래 불모의 땅, 헛되이 흐르는 강, 쓸모없는 산이 하나도 없게 하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관철할수 없었다.

자연의 광란을 길들이던 역대 우갈은 사나이들이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림시숙소에 찾아와 절절히 호소했다.

《병들고 벌레가 갉아먹어 못쓰게 된 풀판을 눈뜨고 차마 볼수 없습니다. 몸에 난 상처인들 이보다 더 아프겠습니까?》

《풀판을 살릴 무슨 방도가 없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과학자들의 가슴을 히비여놓았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보고 쉽게 알수 있는 풀판병해충사진첩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풀판조성과 미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김상철동무가 이런 속생각을 털어놓고 그것을 또다시 자신이 스스로 맡을 결심을 했을 때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일군들인 고룡철, 박영철동무들과 김석현당세포위원장이 적극 지지해나섰다.

풀판병해충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김상철동무는 대규모풀판의 각이한 지점들에 병해충에 찰초소를 수많이 만들어놓고 낮과 밤을 이으며 각종 벌레들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림시숙소로부터 조사지역까지 수십리가 넘는 들길을 매일같이 걸어다니였다.

며칠씩 한지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며 야간촬영을 하였고 또 어느때인가는 습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촬영하려고 깊숙이 빠지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린적도 있었다.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새로운 천적을 촬영하는 과정에 독사에게 물리울번 한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 고정식풍덩이유인등과 이동식풍덩이유인등도 제작하였고 우등불에 의한 풍덩이잡이방법도 착상하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이미 촬영한 병해충사진자료들에 대한 학술고증을 위해 평양에 올라온 기회에 집에 들렸다. 그동안 돌격대에서 리용하던 사진기는 다른 과학자들을 맡은 과학자들에게도 절실히 필요되였는데 자기 혼자만 리용한다면 그들의 연구사업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풀판병해충사진을 더 빨리 촬영하기 위해서도 고성능사진기가 더 있어야 하였다.

안해의 방조를 받으려고 정작 그와 마주앉았지만 선뜻 사진기 소리를 입밖에 내기가 힘들었다.

연구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가정일에 너무나 관심이 적었다는 생각에 자책이 컸다. 아무 말없이 벽면에 붙은 가족사진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언젠가 아들애가 병해충견본사진첩들의 뭉텅을 부러운듯이 손으로 쓸어보며 이런 걸로 가족사진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결혼한지 20년이 가까와오도록 연구현장에 줄창 나가살다나니 가족사진첩은커녕 가족끼리 함께 찍은 사진도 몇장밖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의 거동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낀 안해 박미화동무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이 그전에 내 려행용가방을 열다가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쏟아져나오자 기겁하던 일이 생각나누만. 히히히.》

《당신답지 않게 빙빙 에돌지 말고 직방 말하세요. 눈빛에 다 씌여져있어요.》

한동안 침묵을 지키는데 아들 김원이가 자그마한 함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잡아왔던 벌레들로 곤충표본함을 만들었어요. 인차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겠는데 이걸 기념으로…》

키보다 마음이 먼저 성장한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하루빨리 연구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기특한 마음이 어려있는 곤충표본함을 어루쓸던 김상철동무가 입을 열었다.

《실은… 고성능사진기가 필요해서 왔댔는데… 당신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것 같아 차마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소.》

《가족사진첩은 없어도 풀판병해충사진첩이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미래상점에서 당의 배려를 한가득 받아안고 조국을 받들어 한몫하겠다고 당신과 함께 글을 남긴 과학자의 안해이고 이 나라의 공민이예요.》…

며칠후 세포지구로 다시 떠나는 김상철동무의 려행용가방에는 안해가 마련해준 고성능사진기가 들어있었다.

바래주러 무궤도전차정류소에 나온 안해와 아들을 향해 차창너머로 손을 흔들어주며 그는 마음속으로 되이였다.

(여보, 고맙소. 국사를 가사우에 먼저 놓는 그 마음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오. 아들아, 네 마음까지 합쳐 풀판병해충사진첩을 훌륭히 완성하겠으니 그날을 기다려다오.)

풀향기와 인간적향기

먹이풀에는 자기의 고유한 냄새가 있다.

손카락이 모지라지게 세포등판을 개간하던 나날에 쌓인 눈을 땀으로 녹여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허기진 배를 탈때느라 짐이삼킨 눈덩이가 또다시 온몸에서 땀으로 흘러나오는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늘 한점 없는 뙤약볕속에서 먹이풀을 가꾸고 벌레잡이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풀냄새가 얼마나 싱그러운지 다 알수 없다.

그 냄새를 두고 922건설돌격대원들은 누구나 풀향기라고 하고있다.

먹이풀향기가 젊어지는 대지에 한껏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김상철동무의 몸에서는 언제나 농약냄새가 떠날줄 몰랐다.

그렇듯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 풀판병해충사진첩이 거의 완성되였을 때였다. 하지만 거기에 주요병해충구제방법을 첨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김상철동무는 량심상가책을 느꼈다.

그것은 풀판병해충에 대한 사진촬영이나 종명 혹은 학명에 대한 학술적고증보다 더 품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제였다.

글로 써놓으면 불과 몇줄밖에 안되는 자료를 위해 그는 주요병해충을 구제할수 있는 국내산 농약의 제조와 생산, 현장조건에서의 구제시험을 동시에 밀고 나갔다.

하루에도 보통 길이 1m, 너비 35㎝, 깊이 35㎝가 되는 땅구뎅이를 수십개나 파보아야 하였다. 주요병해충의 발생지들을 찾아다니며 땅속해충들의 종류와 발육상태, 하루 이동거리, 즐김성식물, 활동시간, 피해식물과 피해부위, 각이한 농약을 쳤을 때의 벌레잡이효과 등을 해당 지역별로 깐깐히 조사장악하느라고 그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졌다.

녹초가 되여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전인불발의 의지로 일해나가는 그의 심장속에 무엇이 간직되어있었는가는 어느 한 국내산 농약생산과정이 증명해주고있다.

세포지방에 흔한 생석회와 뇨소를 리용하여 국내산 농약을 만들것을 착상한 그는 현지실정에 맞는 지위음식생산방법을 내놓고 자기가 직접 생산에 달라붙었다. 주요해충인 금뎅이를 잡는데 적합한 시기가 박두했던것이다.

개간단위들에 국내산 농약의 생산방법과 적용방법을 알려주기만 해도 과학자의 의무는 다한것으로 되였지만 그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수십일동안 국내산 농약생산전투를 밀리면 그는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하는 일을 곁에서 방조해주던 세포군사단의 한 동무가 그를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림시숙소에 업어다 눕혀놓았다.

얼마후 의식을 회복한 그의 눈앞에 김석현당세포위원장의 모습이 안겨왔다. 걱정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다른 과학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상철동무, 몸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이러다간 영영 일어나지 못할수도 있어.》

《세포위원장동지, 굼뎅이잡이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생산하면 되겠는데…》

《사람두 참, 당분간 안정치료를 받아야겠소.》

불현듯 김상철동무의 눈앞에는 지금까지 자기의 연구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던 잊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지난 시기 파오를 범했던 자기가 조국을 위한 탐구의 길에서 주저앉을세라 이끌어준 농업연구원 당위원장과 풀판병해충사진첩이 국보적인 도서로 훌륭히 완성되도록 적극 방조해준 농업연구원 원장, 과학부원장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 소장 김치영동무와 식물보호학연구소 실장 리제옥동무,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실장 조은룡동무,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리명희동무도 왜 아직 누워있는가고 질책하는것만 같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와 평양농업대학,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산림연구원 산림병해충연구소, 농업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와 축산학연구소의 과학자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일군들, 922건설돌격대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 조선출판물수출입사의 일군들과 편집원들도 어서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는것만 같았다.

《설사 죽음이 앞을 막아서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난 농약냄새를 맡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농약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주위에 모여앉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 불사신을 보았다. 조국이 바란다면 죽음도 맞받아나가는 육탄용사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았다.

그리고 농약냄새가 절게 풍기는 그에게서 아직까지 맡아볼수 없었던 그런 류다른 향기를 느꼈다. 그것은 미구에 세포지구에서 고기폭포, 우유폭포가 쏟아져나올 환희의 날을 그려보게 하는 사회주의대지의 풀판향기였다.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시구절이 울리고있었다.

…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

* *

국보적인 도서인 《풀판병해충사진첩》에는 대규모풀판에서 발생하는 주요병 190여종에 대한 사진자료 490여점과 주요해충 300여종에 대한 사진자료 810여점을 포함하여 총 490여종의 병해충에 대한 사진자료 1 300여점과 그밖에 18종의 먹이작물사진자료, 주요병해충구제방법 등이 수록되여있다.

《풀판병해충사진첩》은 세포지구에서 대규모풀판의 정상비배관리를 위한 첫 교과서이며 장차 제2, 제3의 세포등판을 풀판에 조성하여 우리 조국땅을 풀과 고기를 바꾸는 락원의 대지로 만드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참조물이다.

당의 축산정책을 받드는데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참된 인간, 조국이 바란다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 맡아나서서 이런 국보적인 도서완성으로 대답한 농업과학자 김상철동무의 애국적소행을 우리 당에서는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었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가슴에 새겨안고 그는 오늘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과학탐구의 길을 걸고있다.

그의 인생관, 그의 애국적소행이 우리 시대의 매 인간들에게 주는 생활의 진리는 이 하늘아래 불모의 땅, 헛되이 흐르는 강, 쓸모없는 산이 하나도 없게 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우의 모든것을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고 열과 정을 쏟아부어 사회주의재부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제손으로 이 땅의 재부를 하나라도 더 늘이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그런 삶은 당과 인민이 기억하는 값높은 삶으로 영원히 빛을 뿌린다는것이다.

조국은 어떻게 젊어지는가. 사회주의대지의 푸르름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이런 애국자들에 의하여 젊어진다.

김상철동무와 같은 애국자들, 수천수만의 공민들의 애국의 피와 땀과 지혜가 이 땅을 정성다해 가꾸고 빛내이기에 사회주의대지는 앞으로 더욱 푸르러지고 조국은 계속 젊어질것이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된다

【평양 5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전람회에는 우리 나라와 벨라루씨, 중국, 이란, 이딸리아, 인도네시아, 월남, 꾸바, 중국 대북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23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전자, 기계, 금속, 건재, 의학, 운수, 경공업 및 식료품업 등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출품되는 이번 전람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경제적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전쟁로병들을 위하는 뜨거운 지성

신의주시 련상2상점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신의주시 련상2상점의 종업원들이 전쟁로병들의 친자식이 되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점장 김정란동무와 종업원들은 해마다 전쟁로병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사진도 찍어주었으며 자주 여러가지 식료품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전쟁로병들을 찾아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들은 전쟁로병세대들에 텔레비존과 측전지를 보내주었으며 겨울이 다가오면 혈육의 정으로 솜옷과 내의, 신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도 마련해가지고 찾아가군 하였다.

김정란동무는 영예군인들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고 원군사업과 중요대상건설장지원사업에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마음을 깊이 새겨주었다.

김정란동무와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자기 단위를 번듯하게 꾸려놓고 봉사활동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몇해전 김정란동무가 당의 믿음에 의하여 신의주시 련상2상점 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을 때였다. 상점에 깃든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볼수록 그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55(1966)년 8월 신의주시 현상종합상점(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업봉사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인민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함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자자구구 심장깊이 되새기며 김정란동무는 상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고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시상업관리소 소장 리국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동안에 상점안팎을 훌륭히 개건한 김정란동무와 종업원들은 봉사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들은 갖가지 상품들과 소금과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을 제때에 점수하여 공급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또한 해마다 산나물철이면 창성군에 나가 곰취와 고사리, 참나물 등 산나물접임도 마련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오늘도 김정란동무와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상업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 창 윤

우리 식의 첨단정보기술제품들 연구개발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과학기술로 우리 당을 굳건히 받들 불같은 열의에 넘쳐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며 우리 나라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입니다.》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일데 대한 당의 요구를 높이 받들고 소장 송억철, 무소장 김희진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정보기술분야에서 세계를 확고히 앞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우리 식의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실장 최광철, 연구사 량지성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우리 나라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로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지난 10여년동안 힘찬 전투를 벌려 정보보안의 믿음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우리 식의 표준암호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표준암호제작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껏 고정적으로 리용해온 주요핵심부분을 가변시켜 암호학적세기를 더욱 높인 우리 식의 표준암호는 현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적극적인 호평을 받고있다.

일반적으로 콤퓨터에 오유를 일으키거나 자료를 파괴시키는 등 콤퓨터환경에 널리 퍼져 피해를 주는 콤퓨터비루스를 검출 또는 제거하는 왁찐은 일련의 지역적특성을 가진다. 그런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쓰고있는 왁찐으로는 국내에서 류포되고있는 콤퓨터비루스들을 제때에 발견하거나 제거할수 없다.

연구소의 20대 청년과학자들은 몇해동안의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국내에서 류포되고있는 콤퓨터비루스를 빠른 속도로 거의나 발견하거나 제거할수 있는 왁찐을 개발하여 많은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들에서의 교육수준과 실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학교교육평가체계프로그람을 개발한 실장 강원봉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연구집단은 얼마전 또다시 학생들의 실력평가를 공정하면서도 신속정확히 할수 있는 콤퓨터에 의한 우리 식의 시험체계를 도입하여 교육부문 일군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콤퓨터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누구나 손쉽게 받아볼수 있게 신문, 잡지열람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우리 당의 목소리가 산간지대, 벌방지대 그 어디에나 신속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 이들은 현재 보다 큰 연구성과를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지난해 여름 옥류아동병원에 수술장화상협의체계와 과호상간 화상협의체계를 도입하여 환자들의 회복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한 실장 주광수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이북전 경험에 토대하여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정보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할 만만한 투지에 넘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 나라의 국력강화에 이바지하는 우리 식의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내놓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지금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식의 정보기술제품들을 더 많이 내놓을 신심드높이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신 윤 철

독자의 편지

우리는 모두 친형제, 한식솔입니다

지난 2월초 저의 세 딸은 끝끝한 황철의 청년들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은 류수같다더니 24년전 제가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안을 때 돌도 채 안되였던 그애들이 이제는 어엿이 자라나 시집을 간것입니다.

우리 광심이와 명심이, 성심이가 약혼식을 한것은 지난해 11월이였습니다. 지난 1월초 이 사실을 알자 그달음으로 달려온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우리들모두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여 결혼상을 차려주자고 이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우리 집으로는 갖가지 집세간들을 안은 일군들이 련이어 찾아왔습니다.

도당위원회일군이 우리 딸들이 일하는 송림피복공장 지배인, 초급당위원장과 함께 찾아왔고 송림시검찰소 일군들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송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이 가구들과 이부자리, 담요들을 안고왔습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하여 우리 집 대문은 닫길새 없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결혼식을 하던 날 저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딸자식들은 혁명가유자녀도 아니고 영웅의 자식도 아닌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 있어 이런 축복을 받아안게 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우리는 모두가 친형제, 한식솔입니다.

송림시 신흥동 40인민반 신 명 숙

메히꼬에 가는 국가비상재해위원회대표단 출발

강일섭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비상재해위원회대표단이 메히꼬의 깐꾼시에서 진행되는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세계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1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박세환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스웨리예의 공산당대표단 도착

로베르트 마리 아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예의 공산당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맞이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리청자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들은 다음과 같다.

17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21일: 활성이 중간정도인 지자기폭풍

22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16일과 18일, 20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파쑈독재광들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독감방에 처박혀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박근혜역도의 초라한 몰골에서 수십년전의 《유신》독재자와 같은 비극적인 종말을 보고있다. 그들은 제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고 해도 반드시 멸망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새겨안고있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류혈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때로부터 56년이 되였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조선인민들이 오늘도 총칼로 《정권》을 강탈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자신들의 요구를 무참히 란도질한 박정희역도의 치떨리는 만행들을 뼈저리게 되새기며 역도를 희세의 매국역적, 극악한 살인악마로 끝없이 저주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박정희역도의 5.16군사쿠데타는 남조선을 친미파쑈독재의 암흑천지로 전변시키고 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짓밟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이후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바빠난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를 부추겨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였다. 수많은 군사깡패들을 동원하여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의 주요기관들과 시설들을 장악한 역도는 야만적인 군부파쑈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쿠데타직후 박정희역도는 《군사〈정권〉은 잠정적인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하지만 실지로는 《정치활동정화법》과 같은 악법들을 내걸고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하는 한편 군부깡패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민주공화당》이라는것을 조작해내는 등 권력야욕실현에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준비밑에 역도는 《정계혼란과 구정치인퇴출》을 구실로 《군정연장》을 위한 《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중에는 비상경계의 공포분위기속에서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감투를 끝끝내 뒤집어쓰고야말았다.

박정희역도가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것은 대대적인 류혈참극의 서막이였다. 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반공》을 《제일국시》로 선포하고 《반공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였는가 하면 폭압무력과 기구들부터 대폭 확장하고 무시무시한 정보정치, 공포정치를 실시하면서 당국의 반역정책에 항거하고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탄압, 학살하였다. 하여 남조선은 거대한 감옥으로, 그야말로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일수 없는 중세기의 암흑사회로 화하였다. 박정희의 피비린내나는 총칼통치, 폭압통치는 장기집권을 노린 《10월유신》을 제기로 극도에 이르렀다. 당시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유신》독재자는 무력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중지시킨데 이어 《유신헌법》을 날조하여 모든 권력을 한손에 거머쥐게 되였다. 《유신》독재체제하에서 그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여 억울한 생죽음을 당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동부베를린사건》, 《전국민주학생련맹사건》, 《전국민주로동자련맹사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모략사건들은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의 자리를 강탈한 《유신》독재자는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희세의 파쑈폭군이며 두손을 인민의 피로 물들인 극악한 흡혈귀였다.

민족을 등지고 사대매국과 독재통치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자들은 결코 오래갈수 없다. 민족앞에 헤아릴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박정희역도이기에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종당에는 자기 졸개의 총에 맞아 제명을 살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는 반역통치배들이 파멸당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극악무도한 《유신》독재자의 피줄을 이어받은 박근혜역도가 비명횡사한 제 애비의 전철을 답습하다가 감옥귀신이 된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유신》독재자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미국의 조종밑에 권력을 찬탈한 반역통치배들의 운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참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역도와 같이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까지 당한자는 없었다.

《유신》독재의 바통을 이은 박근혜역도의 집권기간은 남조선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련속이였다. 역도는 부정과 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였을뿐아니라 《유신》잔당들을 요직에 들여앉히고 파쑈폭압기구들을 대폭 강화하였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사회의 민주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선 애국적인 단체들과 인사들 심지어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마저 모조리 《종북세력》, 《체제전복세력》으로 몰려 탄압당하였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전교조가 합법적지위를 박탈당하였으며 《자주민보》가 강제폐간된것은 몸서리치는 《유신》독재시기를 그대로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중의 죄악은 류례없는 대결정책에 매달려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리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것이다. 역도는 7.4공동성명에 공공연히 도전하였던 《유신》독재자의 본때대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악랄한 반통일책동과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교전직전에까지 치닫게 하였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노린 각종 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은 사실만 놓고보아도 대결광신자, 전쟁미치광이로서의 박근혜의 추악한 정체를 잘 알수 있다.

박근혜역도의 시대배국행위는 제 애비도 울고갈 정도이다.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재연기해달라고 애걸한것도 박근혜이며 일본상전들로부터 몇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에 맞도장을 찍게 한것도 바로 박근혜이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아랑곳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반역정책을 무작정 정당화하며 그것을 주저없이 강행실시하는 독재통치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경제를 죽탕으로 만든것도 다름아닌 피뢰역도이다.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집권기간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며 부정부패와 파쑈폭압, 동족대결 등 온갖 못된것만 일삼아온 박근혜역도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였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며 반역에 미쳐날뛰는 독재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비참한 종말로 죄악의 대가를 치른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아무리 간교하고 포악한 독재자도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는 없다.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는 력사의 반동들은 그가 누구이든 《유신》독재자와 박근혜역도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라 영 국

친미역적들의 쓸개빠진 망동

친미사대에 환장한 남조선괴뢰들이 하는짓이란 하나같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역적질뿐이다.

얼마전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함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서 복무한자들로 그 무슨 《주한미군전우회》라는것을 조작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과 괴뢰들은 올해중에 서울과 워싱톤에 《주한미군전우회》지부들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인원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소속된 괴뢰군까지 포함하여 350여만명규모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주한미군전우회》에 대한 후원의 명목으로 침략군무리와 지어 그 자녀들에게까지 재정지원을 줄것을 계획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원을 확대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친미사대적망동을 극구 정당화하고있다. 그야말로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매국역적들의 역스러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지난 70여년동안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살인마, 남강도무리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해사건과 같은 미제침략군아수들이 저지른 천대미문의 살인만행들은 오늘도 온 겨레를 솟구치는 민족적분노로 치를 떨게 하고있다.

그런데 괴뢰들이 이런 범죄자, 살인악당들을 위한 그 무슨 《전우회》라는것을 내오고 이자들에게 민족의 혈세로 제정지원까지 하겠다고 부산을 피우면서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구역질나게 놀아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쓸개빠진 천하의 역적들인가. 괴뢰패당이 미국상전과 짝자꿍이하여 벌려놓은 《주한미군전우회》조작놀음은 친미사대와 숭미굴종에 얼이 나가 제정신을 잃고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짱그리 팔아먹으며 그대가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가련한 주구들의 몰골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식민지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인민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려고 획책하는 한편 괴뢰들을 내몰아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괴뢰들을 위협하는 한편 《싸드》배치비용을 전부 남조선이 물어내라고 사정없이 몰아대고있는것은 그 한 실례이다. 미국은 저들의 이런 망동을 《주한미군전우회》와 같은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미화분식하면서 괴뢰들을 예속의 사슬에 계속 얽어매고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미국의 이런 흉악한 속심은 보지 못하고 미제침략군무리를 그 무슨 《전우》니 뭐니 하고 추어올리면서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돈을 마구 랑진하여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시리처럼 날아대고있다.

이것을 과연 남조선인민들이 용납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주한미군전우회》라는것을 《굴욕적인 제2의 〈한미호상방위조약〉》, 《일제강점시기 친일역적들이 조작했던 〈일진회〉의 복사판》 등으로 단죄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에 자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기고 상전의 말한마디, 눈빛 한점에도 주눅이 들어 할 말도 변변히 못하고 기여들어갈 구멍만 찾는 식민지하수인들이 그 무슨 《전우》니 뭐니 하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남강도인 미국에 염통도 쓸개도 다 꺼내바쳐서라도 평줄을 부지하고 기어이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하는 친미역적무리들을 절대로 살려둘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수치와 굴종을 강요하고 불행과 재난만 들씌우는 미제침략군을 한시바삐 몰아내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짱그리 팔아먹는 매국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리 성 호

재중동포단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테로흉계를 규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이 11일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정보기관의 극악무도한 테로흉계를 견결히 짓부셔버릴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살인악마들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하려는 치떨리는 흉계를 꾸민 사실에 접한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은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심장을 끓이고있으며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이 적대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용용한 기상에 기접초풍한 적대세력들의 최후발악이 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고 까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감히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극악무도한 광기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테로광신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찾아내여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임을 성명하였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번 범죄행위는 우리 인민보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가장 악랄한 도전이다.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공동의 원쑤,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인 미중앙정보국과 괴뢰정보원과 같은 살인악마집단이 존재하는 한 테로와 공포없는 세상은 한갖 꿈에 불과하다. 인권유린과 테로의 왕국인 미국은 감히 인권, 테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들은 세계의 선량한 정화애호인들과 함께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념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갖은 모략과 전횡을 영원히 종식시켜버릴것이다.

극악무도한 테로광신자들은 국가테로와 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공화국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범죄자들은 즉시 극형을 받아야 한다.

우리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우리의 최고존엄을 결사옹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미제가 반공화국정탐행위에 더욱 광분

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10일 미태평양사령부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5대를 일본의 요꼬다공군기지에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무인기들과 함께 105명의 지원 및 운용병력과 1개의 파견대가 배비되였다.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미공군의 고고도장거리체류형무인기로서 최고 18km 고도에서 34시간이상 비행하면서 10만㎢의 면적을 정찰할수 있다 한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북에 대한 《경계》를 위한것이라고 까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미행정부와 미중앙정보국에 《대북》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통합조직과 기구들을 내오는 등 반공화국정보모략책동을 한층 강화하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

얼마전 미중앙정보국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조직인 《코리아임무센터》라는것을 새로 조작하였다.

이 간첩조직은 우리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싸일에 대한 정보수집을 담당한것으로서 미중앙정보국이 특정국가에 집중한 조직을 창설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남조선 《MBC》방송은 전하였다.

한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오는 10월부터 간첩, 《탈북자》 등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적정보(휴민트) 부대인 524정보대대의 활동을 재개하려 하고있다.

1950년에 창설된 524정보대대는 미8군사령부의 501군사정보여단소속으로서 재정감축정책에 따라 그동안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미국의 반공화국정보모략책동은 우리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 등에 필요한 정보를 새로운 방법으로 제한없이 확보해보려는 극악무도한 기도로서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범죄자를 싸고도는 특등공범자

남조선에서 박근혜가 저지른 《국정》통락범죄를 날날이 까밝힐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역도의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비렬하게 날뛴 황교안의 죄행이 폭로되여 각계의 규탄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황교안역도는 자기 지위를 악용하여 청와대에 보관되여있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들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였다. 그속에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역도의 7시간행적과 관련한 문서들도 들어있다고 한다. 황교안역도는 일단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동안 공개될수 없다는 점을 리용하여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들을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이처럼 뻔뻔스럽게 책동하였다.

황교안의 이번 《대통령기록물》지정놀음은 사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황교안역도로 말하면 박근혜의 《국정》통락범죄를 비호두둔하고 적극 조장하면서 남조선사회를 소란케 한 장본인, 특대형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로서 지금껏 늙다리마녀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하나 감추기 위해 별의별 지랄을 다해온 인간추물이다.

이자는 박근혜가 직무정지당하면서 괴뢰대통령권한대행의 감투를 쓰게 되자 민중이 죽대에 올라간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년의 더러운 죄악을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그것은 박근혜역도의 죄악이자 곧 자기의 죄악이고 박근혜역도의 과면이자 곧 자기의 과면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박근혜의 《파수병》, 《행동대장》 등 가지가지의 수치스러운 오명이 붙은 황교안역도는 자기 기질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역도는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피행과 《싸드》배치, 력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가 추진해온 반역정책들을 계속 집행하겠다고 고아대는 한편 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의 진상들이 폭로되는것을 막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였다.

황교안역도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을 악랄하게 가로막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자는 박근혜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특별검사의 활동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청와대압수수색이 끝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수사기간을 연장시켜줄것을 요구한 특별검사의 신청을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거부함으로써 박근혜역도의 철저한 공범자, 특등알잡이로서의 자기의 몰골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처럼 황교안역도가 박근혜의 죄악을 감싸고 대세의 흐름을 돌려세워보려고 악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집권기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행위에 미쳐돌아간 박근혜역도는 거역할수 없는 초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 파면당하고야말았다.

박근혜가 탄핵되였으면 역도의 손발노릇을 하며 온갖 죄악을 함께 지저른 황교안은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황교안은 마지막까지 버티고있으면서 박근혜역도의 범죄증거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역도를 도와주는것은 물론 특대형추문사건에 깊숙이 련관된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심로 비렬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이번에 황교안역도가 퇴임을 앞두고 박근혜의 특대형추문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청와대문서들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그 누구와의 협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처리해버린것은 이자야말로 용서받을수 없는 박근혜역도와 같고도 같은 특급범죄자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황교안을 그대로 둔다는것은 박근혜를 살려주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역도를 년과 함께 가차없이 징벌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낸 그 기세로 하루빨리 황교안과 같은 가증스러운 역적무리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리고 력사의 무덤속에 깊숙이 처박아야 한다.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황교안역도는 절대로 면할수 없다. 역도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받을 날은 오고야 말것이다.

김 충 성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합의》를 배격

13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유엔고문반대위원회가 남조선과 일본이 조작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합의》를 배격하였다.

위원회는 《합의》내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약속 등과 관련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위원회는 요구하였다.

이것은 불법무법의 《합의》를 걸고 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떠드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창피도 수치도 모르는 못난이짓

얼마전 미국에서 어처구니없는 반공화국광대극이 벌어져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

일인즉 미해병대박물관에서 《장진호전투기념비》제막식이라는것이 있은것이다. 이 놀음에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우두머리들과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늙다리들이 코를 들이밀었다고 한다. 장진호반에서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대참패를 당한 침략자들이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비까지 세웠다니 그야말로 돌부처가 웃다가 배꼽 떨어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당시 장진호반이 우리 공화국에 기어들었다가 무주고혼이 된 미제침략군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되였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장진호반일대에 1해병사단을 비롯한 숱한 무력을 투입하였지만 괴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의 긴밀한 협동작전과 맹렬한 타격에 의하여 미1해병사단의 태부분이 참살격이 되고 겨우 살아남은자들은 겁음아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쳤다. 오죽했으면 미1해병사단과 동행했던 미국기자들이 그 꼴을 보고 《해병대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퇴각》이라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당시 조무래기들이 장진호반일대에서 죽어너부러진 미제침략군의 군화짝들을 벗겨신고 덜썩거리며 끌고다니다가 된욕을 먹고 벗어던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제날의 철부지소년이였던 그들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여 손자들에게 그 사실을 옛말처럼 들려주고있다. 침략군의 유골들이 묻혀있는 장진호반이야말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시체와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때의 수치를 다 잊고 《기념비》제막식을 한다 어쩐다 하며 돌아쳤으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저들의 패전을 어떻게 하나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는 미국의 뻔뻔스러운 망동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2013년을 그 무슨 《조선전쟁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국방성청사에 《조선전쟁기념전시관》까지 차려놓고 저들이 남조선을 《지켜냈다.》고 광고하였다. 지어 미호전계층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워온 조선전쟁을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할 때가 되였다는 황당한 수작까지 떠벌이면서 저들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날까지 그 무슨 《승전일》로 못박아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한편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전투들을 재현하는 불장난소동들을 펼치면서 참패의 수치를 가리워보려고 꾀하고있다. 지난해 9월 남조선의 월미도에서 펼쳐진 그 무슨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식》이라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미제의 정치군사적, 도덕적대참패로 조선전쟁사의 한페지에 기록되여있다. 1950년 9월 중순 미제의 살인장군 맥아더는 수백척의 함선과 약 1 000대의 비행기, 5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인천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월미도의 영웅적방위자들은 단 4문의 포로 적들의 인천상륙을 며칠간이나 지연시켰다. 이것은 세계전쟁사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기적이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력사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패전을 어떻게 하나 《승전》으로 미화하려고 별의별 놀음을 다 고안해내고있다. 이것이 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배자로서의 저들의 몰골을 가리우고 북침전쟁책동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상전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들은 해마다 6월이 되면 미국과 함께 도처에서 지난 조선전쟁과 관련한 《기념행사》들을 요란스럽게 벌려놓고 대결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가 하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반동영화들을 내돌리며 주민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사회전반에 극도의 동족대결기운을 조장하여 련북통일운동을 말살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새 전쟁을 도발하자는것이 괴뢰호전광들의 흉악한 속심이다. 지금 괴뢰군부가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것도 날로 로골화되는 북침흉계의 뚜렷한 발로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그 무슨 《승전》에 대해 광고하며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미국이 지난 세기 조선전쟁의 불을 지를 때와는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전통이며 수치와 패망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차례진 숙명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교훈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대결광기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처참한 파멸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5월항쟁정신으로 민중의 세상을 앞당기자고 호소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 대변인실이 12일 《5월정신 계승하여 민중세상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전두환군사깡패의 쿠데타와 학살에 맞서 광주민중항쟁이 벌어진지 어느덧 37년이 흘렀다고 지적하였다.

민중은 그 어떤 폭압과 만행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항쟁렬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론평은 밝혔다.

1980년 5월 광주학살만행은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응징되였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론평은 비록 광주학살만행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학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주학살만행에 이어 2014년 《세월》호참사에 의한 학살행위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전두환의 뒤를 미국이 봐준것처럼 박근혜, 최순실의 뒤를 미국이 봐주는 한 이 땅에서 100% 진상규명이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만악의 근원인 미군이 남조선에 존재하고 분렬이 지속되는 한 친미독재자들의 학살만행은 철저히 심판될수 없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론평은 일제에 복무한 친일파들이 해방후 오히려 솔세하고 떵떵거리며 더 잘살게 된 리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최악의 《정권》이 교체되였다고 하면서 론평은 진정으로 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는 세상, 전쟁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민족분렬을 끝장낸 조국통일의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광주항쟁에 떨쳐나선 민중의 절절한 념원은 바로 참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세상을 앞당기는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5월항쟁정신으로 끝까지 투쟁할데 대해 론평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격렬한 투쟁

최근 미국의 《싸드》가 전개되고있는 경상북도 성주지역으로 매일과 같이 수백, 수천의 괴뢰경찰무력이 물밀듯이 쏟아들고있다. 파쑈깡패들은 《싸드》배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시위자들을 마구 폭행하면서 온갖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4월 26일 미제침략군은 괴뢰당국과 작당하여 성주골프장에 《싸드》장비들을 기습적으로 끌어들이였다. 미제침략군은 《싸드》배치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항의기세가 두려워 어두운 밤에 무려 8 000여명의 괴뢰경찰로 수송대를 에워싸고 장비들을 운반하였다.

이에 격분한 성주군 주민들과 천불교인들은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라.》, 《〈싸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한다.》라고 웨치며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자 괴뢰경찰들은 그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벌리였다. 이날의 어마어마한 광경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것 같았다.》, 《거대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였다.》라고 전하였다.

《싸드》반대 투쟁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만행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며칠전에는 《싸드》기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차단하고있는 성주군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가는 망동을 부리였다.

하지만 투쟁참가자들은 굴하지 않고있다. 성주군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당국의 《싸드》배치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절사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지금 《싸드》기지로 통하는 도로들을 봉쇄하고 《싸드》장비들과 각종 물자들을 실은 물전기재들을 일체 통과시키지 않고있다.

바빠맞은 괴뢰당국이 직승기들을 동원하고있으나 그 수많은 장비와 물자들을 실어나르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있다. 악에 받친 괴뢰들은 수많은 경찰무력을 동원하여 도로들을 차단하고있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목숨을 내대고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꺾을수 없었다. 투쟁참가자들은 평화와 생존권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괴뢰경찰들을 《미국경찰》로 단죄하면서 굴함없이 맞서싸우고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련행되였지만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있다.

며칠전 《싸드》기지로 들어가는 미제침략군 유조차들이 괴뢰경찰무력을 앞세우고 도로를 열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프락또르로 길을 겹겹이 막고 항거해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에 놀리워 뺑소니치고말았다. 미제침략군이 군용자동차에 후방물자로 위장한 연유통을 싣고 도로를 통과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여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 미제침략군은 《싸드》기지주변에 더 많은 경찰무력을 투입하여 도로들을 빨리 열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는 한편 《싸드》의 조기배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계속 들이밀려 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견결한 투쟁에 부딪쳐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천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수많은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싸드》를 한사코 배치하려는 미국과 괴뢰당국을 단죄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싸드》장비의 불법반입과 괴뢰경찰의 폭력행위를 폭로하면서 《불법반입 〈싸드〉 배치 철회하라.》, 《〈싸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뻔뻔스러운 미국놈들 이 땅에서 사라져라.》라고 웨치며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을 선언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도 각계의 지지성원속에 《싸드》반대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성주지역으로는 로동자,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하기 위하여 모여들고있다.

그들은 파쑈경찰들의 폭압만행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성주지역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성주지역에서 당국의 탄압만행으로 끔찍한 참사들이 벌어질수 있다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은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의 담화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소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난 5월 4일 미국회 하원이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법안을 최대한 넓히고 우리 나라와 경제거래를 가지거나 우리 로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을 제재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조선제재법안을 통과시킨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법안채택후 미국무장관, 미국회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이 줄줄이 나서서 《북조선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가 마련되였다고 법석 고아대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의 빈구멍을 막을수 있는 《완벽한 제재봉쇄망》이 형성되였다는것이다.

한편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면에 내들고 다른 나라들과 해당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 나라와 정상적인 국가관계와 경제무역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강박하고 위협하는 등 우리에 대한 전례없는 제재압박과 외교적봉쇄를 기도하고있다.

미국이 벌리는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해전과방지》의 미명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보려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것으로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지난 2개월동안 《4월전쟁설》, 《선제타격설》을 류포시키며 사상최대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벌려놓은 침략전쟁연습이 우리의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조치앞에 물거품으로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해묵은 제재보따리를 다시 펼쳐놓을수밖에 없는 트럼프행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는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 중엽 조선전쟁도발과 함께 시작된 《적성국교역법》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에게 적용한 단독제재법은 무려 수십가지를 헤아린다. 그 모든것이 례외없이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이라는것은 더 론할 필요조차 없다.

더우기 미국이 국내법으로 주권국가에 대한 제재를 합법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파렴치한 우롱이다.

한 나라가 국내법에 의해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될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5조에는 《매개 국가는 매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지적되여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미국의 력대 행정부들이 그 누가 위임하지도 않은 《세계헌병》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법상 성립조차 될수 없는 주권국가에 대한 단독제재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국제법을 무시하는 전횡을 부려왔다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단독제재법안의 채택으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전면도전해나선 미국의 범죄적정체가 또다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트럼프행정부는 법안이 하원에서 채택되자마자 세계에 대고 우리와 협조하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겠다, 외교관계금수를 낮추라, 대조선《제재결의》를 철저히 리행하라는 등의 날강도적요구를 꺼리낌없이 들이대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 대한 《핵미싸일전파방지 및 제재리행감시》의 명분밑에 우리 선박들이 드나드는 해외항구들을 특별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나라의 령해를 불문하여 자의대로 정선, 선박검사를 진행하며 우리 해외로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대한 《2차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해나서고있다.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32조에는 《책임있는 국가는 자기의 국내법상의 규정을 본 협약에 따라 지니는 자기의 의무를 준수할수 없는 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명기되여있다. 이것은 국내법을 구실로 국제법적의무를 무시하는것은 위법이라는것이다.

저들의 리익에 부합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행위, 내정간섭책동도 정당한것으로 될수 있고 저들의 국내법도 국제법우에 놓일수 있다는 론리야말로 강권의 극치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대조선단독제재의 리면에 놓인 미국의 음흉하고 교활한 세계제패야망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거론한 나라들과 우리와의 관계단절 및 경제무역활동금지를 강요한 나라들은 대체로 미국과 전략적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정학적요충지에 위치하고있는 나라들이다. 그들중 많은 나라들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형형색색의 제재를 받고있다.

이 모든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자주적권리행사를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있는 우리를 고립압살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길들이는 한편 전략적거점들을 장악, 통제하려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말그대로 세계제패야망을 《용의주도》하게 실현해보려는 양키식사고라고 해야 할것이다.

결국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법안이 채택된것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해결과 같은 초보적인 국제관계의 원칙들과 제도적장치들을 완전사멸에로 몰아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저들의 패권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오만성, 파렴치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으며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구상에 그 어떤 평화도 안정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해당 나라들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

현재 단독제재법안에 오른 나라들속에서 《국제법규범에 대한 란폭한 유린》, 《항구봉쇄와 선박검사는 전쟁행위》, 《법안실행은 선전포고와 같은 힘의 작본》이라는 비난과 함께 《단한척의 미국군함도 우리 해상에 들어올수 없을것이다.》, 《미국은 제 집일이나 걱심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미국의 전횡이 국제무대에서 반대배격당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제재가 우리에게 통할수 없는 리유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는 곧 미국의 패배이라는데 대하여 루차 강조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인내력을 더는 시험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결의 3314호에는 정화적시기에 주권국가의 항이나 연안에 대한 타국의 봉쇄를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새롭게 법제화하려 하고있는 단독제재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로서 단호한 군사적징벌을 받아 마땅한것이다.

최후결산의 순간을 기다려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핵보검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앞에서 어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무언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과 선제타격능력은 명실공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을 겨냥한것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흥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이 아니며 제재압박의 고삐를 최대로 조인다고 해서 포기할수 있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트럼프행정부가 진실로 선임행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수립하고싶다면 조미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 등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나아가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는 길을 택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행정부가 아직도 현실감각을 찾지 못하고 단독제재의 《효과성》에 기대를 걸고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전 《2016년 대북조선제재 및 정책강화법》을 채택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공세를 가했던 오바마행정부가 그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었던가를 다시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1년동안에 우리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등 최첨단수준의 주체적인 핵공격수단, 핵무기들을 련이어 개발하여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는 쾌거를 단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재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지금에 와서도 제재로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허황한 망상은 없다.

조미대결의 력사는 비대칭전쟁의 력사였다. 현대적인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거듭하여왔다. 하물며 오늘 핵대 핵의 대결, 의지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은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행정부가 아직도 상대를 분별 못한채 제재에 계속 광기를 부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5월 15일
평 양

미국의 케케묵은 《위협》나발은 통할수 없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모독, 중상하는 《위협》나발을 열심히 불어대고있다.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조선이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허튼 망발을 쩍하면 늘어놓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인물들도 조선이 《긴급한 국가안보위협》으로 된다고 참새무리 조잘대듯 하고있다.

미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위협의 가해자》, 《평화파괴자》라는 감투를 씌워 저들의 대조선침략책동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그따위 케케묵은 낡은 수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언론론조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것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미국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위협》설은 완전한 거짓말이며 상대를 잘못 보고 선불질을 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들쓰게 된다는것이다.

민주풍고 인터네트홈페지에는 미국작가 죠 글리로드가 쓴 《대중보도수단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조선의 진실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을 보면 위협의 가해자, 평화파괴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수 있다.

서방대중보도수단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진실들이 어떤것인가 하면 우리 나라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공약한 3개 나라들중의 하나이라는것, 우리가 긴장완화를 위한 쌍무회담을 미국에 어러차례 제기하였으며 미국이 매해 남조선에서 진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우리도 핵시험을 림시중단할수 있다고 천명하였다는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

우리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핵선제타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긴장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와 관련한 회담들을 하자고 제기할 때마다 매번 외면하였으며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군 하였다. 미국은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에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었으며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까지 실전과 다름없이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전쟁을 완전종결할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왔다. 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이 곧 남조선에 들고앉아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릴 법률적기초를 잃어버린다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를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현실은 이렇다.

미국작가는 글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다음 신보수주의자들과 대중보도수단들은 물론 트럼프도 조선이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이 아니면 완전한 거짓말이다. 조선은 그 어느 나라도 공격한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전쟁이후에만도 30개가 넘는 나라들을 폭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누가 침략자이고 누가 조선과의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누가 조선을 여러차례 핵무기로 위협하였는가라는 물음들을 제기하였다.

핵위협공갈의 가해자,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려고 날뛰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우리는 그에 대처하여 핵보유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끝장낼수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도 수호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공화국과 조선민족의 억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강위력한 자위의 수단이다.

올해 일촉즉발의 핵전쟁발발국면에로 치달린 조선반도정세가 어떻게 정정되였는가 하는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취임식때에 트럼프는 《미국민의 리익》에 대하여 뜨겁으면서 그것을 대외정책 특히 대조선정책에 반영할것이라고 떠들었다. 《미국민의 리익》이란 군수독점재벌들과 그 전쟁사환군들의 리익으로서 그것은 곧 침략이며 전쟁을 의미한다. 력대 미행정부들은 《미국민의 리익》을 떠들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일삼아왔다. 그 《미국민의 리익》이라는 홍타령속에서 다른 나라 인민들은 불바다, 피바다속에 빠져들었고 미독점재벌들은 돈소나기를 맞았다.

실지로 미국은 《미국민의 리익》을 위해 조선반도에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들이밀면서 당장 핵전쟁을 도발할것처럼 미쳐날뛰였다. 지난달에 《4월전쟁설》이 온 세계에 류포되였다는 사실자체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 평화는 굳건히 수호되였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 짙게 드리워졌던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걷혀질수 있은것은 우리가 틀어쥔 자위적핵억제력의 덕이다.

현실은 우리의 핵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그자체가 위협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트럼프행정부는 지금 선임자의 실패한 《전략적인내》정책을 되풀이하고있다.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은 군사적위협공갈과 제재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조선이 굴복할 때까지 인내성있게 기다린다는것으로서 시작부터 우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한 실패를 전제로 한 망상적인 정책이였다. 이 정책의 강행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으며 반대로 미국은 본토의 안전에 더 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국제사회는 새로 출현한 트럼프행정부에 필요한 조언을 줄만큼 주었다. 세계의 주요언론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적위협으로는 조선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으며 그러한 군사적압박은 오히려 조선을 더 강한 핵보유국으로 떠미는 행위로 된다는것,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면 할수록 미본토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하려는 조선의 의지만 더 강하게 해줄뿐이라는것을 한두번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 말로는 오바마가 추진한 《전략적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답습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트럼프페거리들은 군사적위협공갈과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한 높이고있다. 저들이 오바마행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며 날뛰고있지만 얻는것은 쉬쁠도 없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켜보려고 단독제재를 가한다, 주변국들을 제재에 끌어들인다 어쩐다고 북닥소동을 피우고있지만 이것도 심한 무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자력자강을 위대한 동력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제재따위가 통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제재속에서 우주강국,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고있다.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전면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모른다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어째보겠다는것은 파멸을 스스로 부르는짓이다.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이전 국방정책연구국장 찰즈 브이 페나는 국제관계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론평에서 트럼프의 말대로 조선과의 《중대한 분쟁》이 실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걱정스러운 일일것이다, 분석가들은 조선과의 전면적인 전쟁은 매우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하고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1994년에 클린톤이 조선핵계획에 대한 군사력사용을 고려할 당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조선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적어도 100만명의 사망자와 1조US$의 경제적손실을 입을것이라고 실토하였다. 조선핵미싸일기지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인 공격조차도 조선이 결코 제한적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것이다. 조선이 공격을 당하고도 가만히 앉아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공상이다. 그러한 공격은 조선의 강력한 대응만 초래할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러한 충고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미국이 기어이 핵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을뿐아니라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본토까지도 우리의 타격권내에 들어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어떤 제재와 군사적위협공갈에도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 천만군민은 미국이 감히 선불질을 해댄다면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박살낼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서 고래치는 조선은 절심하면 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리 현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들과의 련대성결의 채택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에서

뿌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된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에서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들과의 련대성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국가이라고 찬양하였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혜택속에서 평등하고 참다운 자주적존엄과 복리를 누리고있는 조선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고 결의는 지적하였다.

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고 하면서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외면하며 반통일에로 나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였다.

현실은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번영이 이룩되자면 외세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결의는 강조하였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계직업련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세계직업련맹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핵전쟁연습들을 준렬히 규탄하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수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릴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계직업련맹은 모든 성원조직들과 친우조직들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의 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한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전승절에 즈음한 《불멸의 대오》행진 진행

로씨야의 각지에서 9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불멸의 대오》행진이 진행되였다. 약 800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행진에 참가하여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이 시장을 비롯한 모스크바시민들과 함께 수도에서 진행된 《불멸의 대오》행진에 참가하였다.

싼크트-페쩨르부르그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의 붉은군대부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들에 떨쳐나와 전시가요들을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날 울라지보스또크와 하바롭스크, 치따 등 주요도시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멸의 대오》행진이 있었다.

로씨야에서는 《승리자들의 열병식》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에 루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불멸의 대오》행진이 2015년부터 국가적인 공식행사로 진행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응 당 한 대 접

얼마전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집단수용소에서 나치스들과 파쑈조직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참가한 쓰르비아인자치공화국 대통령인 밀로라드 도디끄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주재 미국대사를 쓴외보듯이 무시해버렸다. 미국대사의 얼굴이 수수떡처럼 빨개졌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속이 몹시 끓들지었겠지만 그것이 제 대접인걸 어찌겠는가.

그것은 미국대사의 망신이자 미국이 받은 랭대이다.

미국은 《평화》와 《안정》을 부르짖으며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 정치인들을 제재명단에 올려 압력을 가하고있다. 밀로라드 도디끄도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라있는 대상이다.

미국은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서의 안정화과정이 공회전하고있는 책임을 도디끄와 쓰르비아인들에게 넘겨씌우고있다. 이 비렬한 음모실현을 위해 바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주재 미국대사가 앞장에 서서 뛰고있다. 그로 하여 반미감정을 가지고있던 쓰르비아인자치공화국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보기 좋게 통쾌을 먹였던것이다. 응당한 대접이다.

민중이 쪽대에 올라간듯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며 다른 나라들에 이래라저래라 혼시질하기 좋아하면 이런 망신을 당하기마련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재압박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보다 더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것이다.

라 명 성

에꼴트의 양어장에서 물고기수확

당국의 헌법개정을 반대

일본야당들이 당국의 헌법개정기도에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현 당국자가 헌법개정기한을 정한것과 관련하여 최근 민진당 대표와 사민당 당수를 비롯한 4개 야당의 고위인물들은 도꾜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70년동안 지탱해온 헌법의 기본원칙이 위협당하고있다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량심은 단죄한다

《땅굴경제》, 누구에게나 귀에 선 이 용어로 상징되는 곳은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이다. 여러 지역들과 련결된 이곳 땅굴들로는 식량과 애기용품인것으로부터 의복류와 신발, 텔레비존과 콤퓨터를 비롯한 전기용품, 건설자재 심지어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물품들이 운반된다. 결코 주민들의 편리성과 경제적효과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생겨난것이 아니다.

이 모든것은 령토팽창열에 들뜬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야만적이며 강도적인 봉쇄책동으로 인해 생겨난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의 륙지와 해안을 완전봉쇄하고 사람들의 래왕과 상품류통을 가로막고있다.

하다면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어떻게 되여 팔레스티나령토에 끈질기게 들고앉아 주인처럼 행세하며 중동평화와 안전을 세계적으로 말살해오게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비호와 부추김밑에 팔레스티나땅에 떼지어 모여든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저들의 국가를 조작하였다.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야욕은 끝없이 팽창되여 중동지역을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깊숙이 몰아넣었다. 이스라엘-팔레스티나관계문제해결에서 제일 예민한것들중의 하나로 되는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문제들도 이 시기에 산생되였다. 제3차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 수리아의 골란고원, 에짚트의 시나이반도 등을 손에 넣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점령지대들에 정착촌을 세우는것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강행하여왔다. 외신들이 유태인정착촌건설은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야망의 직접적발현으로서 중동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의 하나로 된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이스라엘이 정착촌건설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팔레스티나땅을 한치한치 먹어들어가 둥지를 틀고앉음으로써 팔레스티나의 전령토를 영원히 저들의것으로 만들자는것이다. 현재 요르단강서안지역의 거의 50%에 달하는 지역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는 출입금지구역으로 되여있는 유태인정착촌지대로 변하였다.

올해 1월 이스라엘당국은 유엔분담금에서 600만US$를 삭감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리유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중단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는것이다. 유치하고도 비렬한 유엔분담금삭감조치에 바로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지도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태복고주의국가의 오만성과 파렴치성이 비껴있다.

어떻게 해서나 팔레스티나의 전령토, 나아가서 중동지역을 통채로 타고앉으려는 이스라엘의 망동은 그를 반대하는 국제사회를 엄수이여기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테로분자》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이 지역에 콩크리트와 전기철조망으로 된 수백km에 달하는 장벽을 건설하여놓았다. 그들이 떠드는 안전장벽은 본질상 분리장벽이다. 다시말하여 안전장벽건설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분할통치수법에 따른것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팔레스티나의 독립이 선포되여 국경선이 확정되기전에 먼저 물리적장벽을 구축해놓음으로써 꾸드스를 비롯한 대많은 팔레스티나땅을 이스라엘에 병합하여 영구지배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령토에 건설된 유태인정착촌들을 합법화하는 법을 정식 채택하였다. 그리고 군사적힘까지 발동하여 정착촌건설을 더욱더 악랄하게 강행하고있다.

《도덕보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눈물은 나중에 흘리라.》, 이것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침략행위에 광분하는 이스라엘살인마들의 군사교리이다. 이로 인해 팔레스티나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생죽음을 당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낯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가고있다.

국제대사령은 올해에 발표한 년례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2016년에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110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였고 수천명의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하였다고 엄중하게 지적하였다.

현재 팔레스티나땅에 살아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장그리 질식시키려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만행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팔레스티나령토에 있는 나무까지도 례외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2015년에만도 1만 596그루에 달하는 나무들을 불에 태워버리거나 뿌리채 뽑아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곳곳에 검문소와 도로차단물들, 분리장벽을 설치해놓고 상품의 류통, 사람들의 래왕을 가로막고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작당하여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꾸드스로 옮기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로 하여 중동지역정세가 또다시 불안정해지고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에 각방으로 지원을 주면서 중동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리용해오고있다.

이스라엘이 유태국가건립을 선포한지 10분만에 이를 승인한 미국이라고 볼 때 대사관을 꾸드스로 옮기려는 속심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이 행성에 자기의 신성한 령토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팔레스티나인민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강점을 끝장내고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꾸준하고도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정의가 부정의를 타승하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령토강탈책동을 그만두고 팔레스티나령토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강점한 모든 령토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중동지역을 세계최대의 불안정지역으로 만들어놓은 중동평화의 암적존재들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신랄히 단죄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걸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만행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10일 수리아에 대한 공습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날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이 데이르 알 주르 도상공에 날아들어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여 10명의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만행은 침략과 간섭의 원흉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쁘라하국제마라손경기대회소식

쁘라하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7일 체스꼬에서 진행되였다.

남자경기에서는 에티오피아선수가, 녀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우승을 쟁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076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